

“법령미비로 계엄군 성범죄 진상규명 난망”

5·18특별법에 명시 안돼...여성 조사위원 참여 등 필요 국회 ‘5·18과 여성 성폭력’ 세미나서 김영필 교수 지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금명간 꾸러질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진상 조사위)가 법률 미비로 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제3조)에서 민간인 학살, 상해, 암매장 등 인권침해 사건과 집단발포, 헬기사격 의혹, 군에 의한 5·18조작 등은 규정했으나 계엄군 성범죄의 경우 조사대상에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5·18과 여성 성폭력’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갈 5·18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여성에 대한(계엄군) 성폭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꾸러질 진상 조사위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전남대 5·18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김 교수는 “해당 법 1조(목적)에서는 구체적 진상규명의 예시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들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문제는 인권유린이나 폭력의 한 예로서 학살이나 암매장 등 다른 이슈에 비해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성범죄 규명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상대로 계엄군 성범죄 규명이 구체적인

로 언급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진상 조사위에 복수의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진상 조사위를 상대로는 위원회 결의로 ‘성폭력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10월 31일까지 활동하는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국방부의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성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5·18진상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도 쏟아졌다.

5·18 연구자인 안중철 박사(정치학)는 문헌·인물·현장조사, 가해자 조사, 피해여성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 박사는 “연구자 상당수는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증언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6차 피해보상까지 통제

자료에 의하면 여성 피해자는 25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당시 여성 성고문, 성폭력 진실을 밝혀달라고 자료와 함께 국회에 요청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기회까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군 자료 확보, 가해자 사면 복권 법률 조항을 적극 활용한 가해자 증언 확보가 진상규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태경 사장은 “1988년 광주청문회 전후와 1991년 발간된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잡지를 통해 5·18 성폭력 문제가 알려질 수 있었으나 가부장적 사고가 침묵을 강요했다. 현재 전체 유공자 가운데 여성이 300여명으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계엄군 성폭력 만행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군 자료 확보, 가해자 사면 복권 법률 조항을 적극 활용한 가해자 증언 확보가 진상규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태경 사장은 “1988년 광주청문회 전후와 1991년 발간된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잡지를 통해 5·18 성폭력 문제가 알려질 수 있었으나 가부장적 사고가 침묵을 강요했다. 현재 전체 유공자 가운데 여성이 300여명으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계엄군 성폭력 만행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달뜨기 02:52
해질 18:52 달지기 17:14

선선한 가을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광주	비운뒤 맑	22/27	보성	비운뒤 맑	21/25
목포	비운뒤 맑	23/27	순천	흐리고 비	22/26
여수	흐리고 비	22/25	영광	비운뒤 맑	22/27
나주	비운뒤 맑	21/27	진도	비운뒤 맑	23/26
완도	흐리고 비	20/25	전주	비운뒤 맑	22/27
구례	비운뒤 맑	20/25	군산	비운뒤 맑	21/27
강진	비운뒤 맑	22/26	남원	비운뒤 맑	19/26
해남	비운뒤 맑	22/27	흑산도	비운뒤 맑	23/27
장성	비운뒤 맑	20/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1.5	서~북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서)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26	17:27	11:51	--:--
여수	01:04	13:04	07:04	17:42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17/27	18/27	18/27	18/27	18/27	19/28	20/29

◇생활지수

보통	보통	좋음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광주 북구 에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18곳 → 45곳으로 늘려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법무행정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18개에서 45개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에덴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추가됐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5월 시작됐으나 참여병원이 적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활영해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를 원하는 병원의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수박 출하 기원제 무등산수박 출하 기원제가 6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공동직판장에서 열렸다. 문인 북구청장과 무등산수박 생산조합원들이 함께 제를 지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 여고 성범죄 전수조사

광주교육청·경찰, 학생 면담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교사 사건(광주일보 2018년 8월 31일자 6면)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해당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들에 의한 추가 성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경찰청은 모두 20명을 투입, 이날부터 광주모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학교 1·2학

년 전체학생 687명을 개별 면담, 재학 중 교사에 의한 성희롱 등 성 관련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완료시기를 특정하기 힘들다. 전수조사결과 성범죄에 연루된 추가 교사가 있다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A(36)씨가 1학년 1학년 여학생 B(16)양을 괴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시험 답안지를 고치게해주는 등 성적 조작도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 8월 불거졌다.

해당 교사는 학교법인에 의해 즉각 계약 해지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측은 “합의된 게 아니라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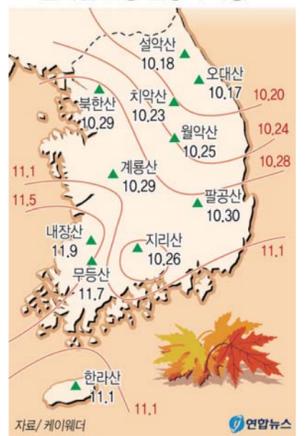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교육청 안팎에서는 학생 전수조사를 벌여 교사에 의한 추가 성범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 첫 단풍 10월 24일·절정 11월 7일

지리산 10월 12일 시작
기후변화로 4일 늦어져

올가을 단풍 절정기 예상도



올해 무등산 단풍은 10월24일경 첫 관측돼 11월7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6일 지리산 첫 단풍은 10월12일, 무등산은 10월 24일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예년과 비슷한 오는 27일에 볼 수 있고, 중부지방은 27일에서 10월 19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2일에서 10월 24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단풍 절정은 첫 단풍 관측 후 2주 가량 지난 뒤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은 10월26일, 무등산은 11월7일 오색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낙엽수)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단풍의 시작되는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 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 바

른 곳에서 아름답다. 기후변화로 단풍이 드는 시기도 다소 늦어지는 추세다. 1990년대에 비해 최근 10년 새 첫 단풍시기는 설악산에서 1일, 내장산에서 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이 절정에 오르는 시기도 지리산에서 3일, 월악산과 무등산에선 4일 늦어졌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2018-GN1-33-0021
www.maxo.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대한보청기 맞춤형 맞춤렌탈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

1. 가입비 없음

2. 5년 만기 시 본인 소유 (의무 사용기간 2년)

3. 월 4만원대로 고가의 보청기를 쉽게 사용

4. A/S, 배터리 등 모든 제반서비스가 무료!!

부담이 적으므로 양쪽으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점심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